

주간 증시 브리핑

2026.7.20(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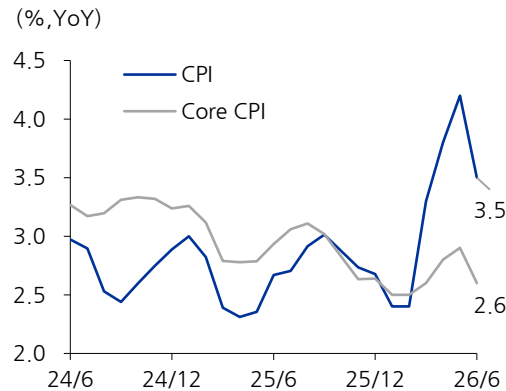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 **[증시요약]** 코스피는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되면서 심한 투매가 반복되며, 4월말 (4/30일 6,598pt) 수준으로 **되돌아감** (6,820p, 주간 -655p, -8.8%). 코스닥도 재차 700대로 급락함 (791p, 주간 -5.4%). **달러원은 美 물가 둔화, 한은의 금리인상(+25bp, 2.75%)을 계기로 1,470원대로 하락함.**
- **[해외증시]** 美 증시는 은행주 실적 호조와 물가 둔화 (6월 CPI -0.4% mom)에도, 주 후반 **저비용 中 Moonshot AI 출시 후 기술주들이 급락함.** (주간 S&P500 -1.6%, 나스닥 -2.9%). 닷케이도 반도체주 불안으로 급락함 (주간 -6.4%). 中은 성장률 실망(4.3% yoy)으로 본토증시는 약했으나, 홍콩 기술주들은 3주째 상승 (주간 상하 -5.8%, 홍콩 +1.6%).
- **[시장전망]** 코스피는 6/22일 9,114pt 고점 이후 -25% 하락함. 코스닥은 지난 4/27일 1,226pt 이후 -34% 하락함. 추가 하락 폭은 웬만한 악재를 거의 반영한 수준임. 그러나 정부 정책에도, 레버리지 ETF에 따른 쏠림의 부작용이 예상됨. AI 고점 논란이 완화되는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주요일정]**
 - ① 美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7/24일)
 - ② 美 7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7/24일)
 - ③ 韓 2Q GDP (7/23일)
 - ④ 유 ECB 통화정책회의 (7/22~23일)
 - ⑤ 中 대출우대금리(1년/5년) 결정 (7/20일)
 - ⑥ 美 무역법 122조 관세만료 (7/24일)
 - ⑦ 美 알파벳, 테슬라, BM 등 실적발표

구분		7/17	1W	1M
KOSPI	↓	6,821	-8.8%	-23.1%
S&P500	↓	7,458	-1.6%	0.5%
DOW	↓	52,146	-0.9%	1.3%
닛케이225	↓	64,141	-6.4%	-8.2%
상해종합	↓	3,764	-5.8%	-8.4%
원/달러(원)	↓	1,478.5	-1.5%	-2.3%
엔/달러(엔)	↑	162.2	0.3%	1.2%
국고채3년(%)	↑	3.848	3.768	3.71
국고채10년(%)	↑	4.297	4.23	4.071
미국채10년(%)	↓	4.550	4.563	4.491
WTI(달러/배럴)	↑	82.5	15.5%	7.4%
한5-yr CDS(bp)	↑	23.0	0.72	1.1

CHART of the week

美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美 6월 CPI +3.5% yoy 상승 (7/14일)**
물가서프라이즈, 금리 인상 우려 일보 후퇴
 - 美 6월 CPI는 전월비 -0.4% mom, 전년비 +3.5% yoy로 5월(+4.2%)에서 크게 둔화, 시장 예상(+3.8%)을 하회함. 근원 물가 상승률도 +2.6% yoy로 예상(+2.9%)을 큰 폭 하회함.
 - 에너지(-5.7% mom)가 둔화를 주도했지만, 주거비 물가가 +0.1% (21년 1월 이후 최소) 상승에 그침.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보험으로 근원 물가로의 확산 우려도 완화됨.
 - 6월 PPI(-0.3% mom, +5.5% yoy) 상승률도 둔화됨. 7월 美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짐.
 - 그러나 美 경제가 견고하고, 중동 지역 재 긴장 영향이 부상. 7월 물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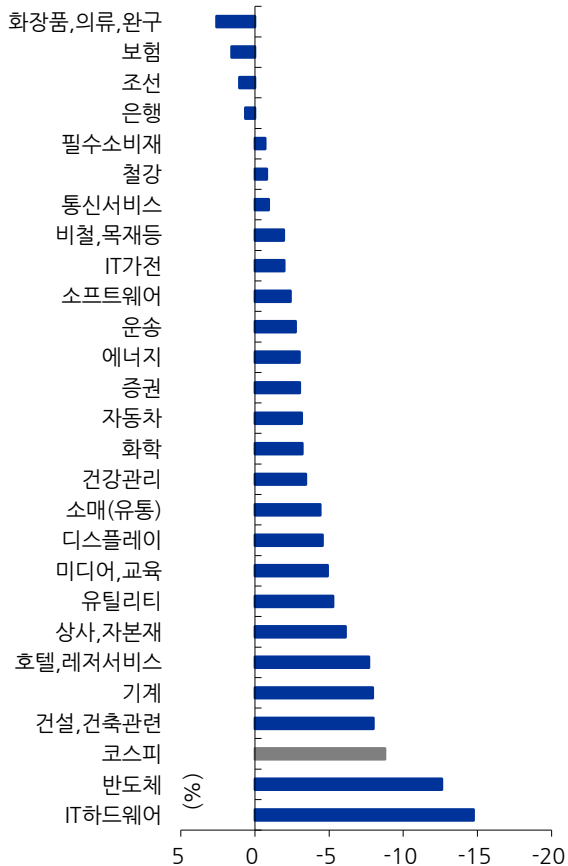
- 韓 한은 금통위, 25bp 금리 인상 (7/16일)**
매파적이나, 연속 인상 우려는 완화
 - 韓 BOK는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25bp 인상을 단행함 (만장일치).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한은은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힘. 속도라는 문구는 22/7월 한은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을 때 사용했던 표현임.
 -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했던 연속 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임. 신현승 총재는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다 살아 있는 회의”라며 지표(성장률, 물가)를 확인한 이후 결정할 것을 시사함.
 - 한은의 수요 측 물가 우려가 높아졌으나, 연속 인상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음.

- 中 2Q GDP +4.3% yoy 성장 (7/15일)**
내수와 수출 간 괴리 확대
 - 中 2Q GDP는 +4.3% yoy 성장, 예상(+4.5%)을 하회함. 22년 4분기 이후 최저치.
 - 공급망 차질에도 6월 수출은 +27% 증가(상반기 +17.6%)하며 견조한 반면, 6월 소매판매는 +1.0%에 그치며 양극화가 여전함.
 -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5.7%로 예상(-4.9%) 대비 부진, 부동산투자(-18%)는 1분기 대비 낙폭이 확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됨.
 - 상반기 성장률은 정부 목표(4.5~5%) 내로 대규모 부양 기대감은 낮은 상황에서 국무원은 ‘15차 5개년 소비 확대 계획을 발표.
 - 하반기 中 경제는 첨단 기술 산업과 내수 간 괴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韓 채권시장 동향 (7/13~7/16)**
여전히 환율에 연동, 베어 스틱프닝 마감
 - 국고채 3년물 금리 3.848% (+8.0bp), 10년물 금리 4.297% (+6.7bp) 마감.
 - 마이란 무력충돌 소식에 약세 출발. 국제유가 상승하며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 금통위 경계로 미국 CPI, PPI 예상 하회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 7/16일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2.75%). 신 총재가 수요측 인플레이 압력을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등 매파적이었으나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에서 마무리. 금리는 이벤트 해소 반영하며 주간 상승폭 일부 반납.

주요 이슈 / 경제 지표 전망 / 주요 일정

주간 업종별 수익률(7/16 기준)



주요 경제지표 예상(7/20~7/24)

韓 2Q26 GDP(7/23) → 수출 호조에 내수 회복 가세 여부

- 韓 1분기 실질GDP는 +1.8%qoq(+3.8%yoy)로 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 1분기 성장은 수출(+5.9%qoq), 설비투자(+6.6%), 건설투자(+1.4%) 증가가 견인
- 특히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속보치보다 크게 상향되며 내수 기여도는 +0.7%p 기록. 성장 모멘텀이 내수 일부로 확산됨
- 6월 수출은 사상 최초 1,000억달러를 돌파함(+70.9%yoy), 반도체 수출은 +199.5%yoy 증가. 2분기에도 순수출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2월대비+0.6%p)로 상향했으며 8월 전망에서는 3%대 추가 상향 예상. 2분기 GDP가 견조하게 발표될 경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美 무역법 122조 관세 만료(7/24) → 301조 활용 재부과 전망

- 美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임시 관세는 7/24일 만료 예정
- 트럼프 행정부는 2월, 美 대법원의 IEEPA 근거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
- 해당 조항은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 무역법 122조 관세가 만료되더라도 대체 수단으로 재부과가 이어질 전망. 현재로서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USTR은 지난 6월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 공개, 60개 경제권에 10~12.5% 관세 부과 방침 발표. 한국은 관련 제도 미흡으로 12.5% 부과 대상에 해당됨

주요 경제지표 발표

매크로 / 시장 이벤트

7/20 (월)	美 6월 경기선행지수 (P: 0.1%)	- 日 휴장(바다의 날) - 中 LPR 금리(1년/5년) 결정
7/21 (화)	- 유 7월 ZEW 경기기대지수 (P: 9.5pt) - 韓 7월 1-20일 수출 (P: +60.4%yoy)	[실적발표] 美 찰스슈왑
7/22 (수)	韓 6월 생산자물가지수 (P: +8.5%yoy)	유 ECB 통화정책회의(~23일)
7/23 (목)	- 유 7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P: -17.7pt) - 韓 2분기 GDP (P: +1.8%qoq)	[실적발표] 韓 OCI홀딩스, KB금융 - 美 인텔, RTX, 록히드마틴
7/24 (금)	- 美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P: 53.9pt) - 美 7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P: 51.2pt) - 美 6월 신규주택매매 (C: 60만건, P: 58만건) - 유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P: 51.4pt) - 유 7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P: 49.4pt) - 日 6월 소비자물가지수 (P: +1.5%yoy) - 日 6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P: +1.4%yoy)	- 美 무역법 122조 관세 만료 [실적발표] 韓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로템, 삼성중공업 - 美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넥스트에너지, 버라이즌

추천 종목

섹터/산업	종목/코드	편입가 (원) 편입 날짜	수익률	최근 1년간 차트	주요 실적 예상 & Valuation	투자 포인트																				
에너지	SK이노베이션 (096770)	- (7/20일)	신규 편입		(단위: 십억원, 배) <table><tr><th></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r><tr><td>매출액</td><td>74,269.6</td><td>81,069.8</td><td>102,548.9</td></tr><tr><td>영업이익</td><td>63.3</td><td>429.9</td><td>5,281.7</td></tr><tr><td>순이익</td><td>(2,372.5)</td><td>(1,434.3)</td><td>2,227.1</td></tr><tr><td>PER (배)</td><td>-</td><td>-</td><td>9.6</td></tr></table>		24년	25년	26년	매출액	74,269.6	81,069.8	102,548.9	영업이익	63.3	429.9	5,281.7	순이익	(2,372.5)	(1,434.3)	2,227.1	PER (배)	-	-	9.6	- 러시아 경제시설 파손으로 복구 기간 감안 시 경제마진 강세 이어질 전망 - 경제설비 가동 중단으로 윤활유 시황까지 동반 개선, 초호황 강세 - SK On 포드 보상금 반영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
	24년	25년	26년																							
매출액	74,269.6	81,069.8	102,548.9																							
영업이익	63.3	429.9	5,281.7																							
순이익	(2,372.5)	(1,434.3)	2,227.1																							
PER (배)	-	-	9.6																							
그린산업/ESG	두산퓨얼셀 (336260)	- (7/20일)	신규 편입		(단위: 십억원, 배) <table><tr><th></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r><tr><td>매출액</td><td>411.8</td><td>448.8</td><td>577.2</td></tr><tr><td>영업이익</td><td>(1.7)</td><td>(55.1)</td><td>(24.9)</td></tr><tr><td>순이익</td><td>(10.5)</td><td>(54.5)</td><td>(41.8)</td></tr><tr><td>PER (배)</td><td>-</td><td>-</td><td>-</td></tr></table>		24년	25년	26년	매출액	411.8	448.8	577.2	영업이익	(1.7)	(55.1)	(24.9)	순이익	(10.5)	(54.5)	(41.8)	PER (배)	-	-	-	- 미국 데이터센터향 PAFC 공급이 올 4분기 20MW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내년 1분기말부터는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 - 중국이 Scandium의 대부분을 대부분 정련함에 따라 연료전지를 SOFC 타입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에 경각심. 동사의 PAFC에 대한 구매 의사가 크게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음 - 목표주가는 2027년 매출액 기준 PSR 5.6배 수준. 해외 비교업체들은 평균 PSR 7배
	24년	25년	26년																							
매출액	411.8	448.8	577.2																							
영업이익	(1.7)	(55.1)	(24.9)																							
순이익	(10.5)	(54.5)	(41.8)																							
PER (배)	-	-	-																							
자동차 부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61390)	70,500 (7/6일)	+4.4%		(단위: 십억원, 배) <table><tr><th></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r><tr><td>매출액</td><td>1,213.8</td><td>21,153.3</td><td>22,474.7</td></tr><tr><td>영업이익</td><td>108.7</td><td>1,849.2</td><td>2,147.1</td></tr><tr><td>순이익</td><td>83.9</td><td>1,217.8</td><td>1,358.2</td></tr><tr><td>PER (배)</td><td>15.9</td><td>7.3</td><td>6.6</td></tr></table>		24년	25년	26년	매출액	1,213.8	21,153.3	22,474.7	영업이익	108.7	1,849.2	2,147.1	순이익	83.9	1,217.8	1,358.2	PER (배)	15.9	7.3	6.6	2분기 실적 호조 예상 - RE 중심 매출 구조로 단기 업황 변동에 자유로운 타이어 업체들의 아웃퍼폼 기대
	24년	25년	26년																							
매출액	1,213.8	21,153.3	22,474.7																							
영업이익	108.7	1,849.2	2,147.1																							
순이익	83.9	1,217.8	1,358.2																							
PER (배)	15.9	7.3	6.6																							
에너지	한국전력 (015760)	38,000 (6/22일)	-10.4%		(단위: 십억원, 배) <table><tr><th></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r><tr><td>매출액</td><td>93,398.9</td><td>97,646.8</td><td>98,502.1</td></tr><tr><td>영업이익</td><td>8,364.7</td><td>14,976.7</td><td>9,853.2</td></tr><tr><td>순이익</td><td>3,622.0</td><td>9,110.5</td><td>5,906.7</td></tr><tr><td>PER (배)</td><td>3.7</td><td>2.4</td><td>3.7</td></tr></table>		24년	25년	26년	매출액	93,398.9	97,646.8	98,502.1	영업이익	8,364.7	14,976.7	9,853.2	순이익	3,622.0	9,110.5	5,906.7	PER (배)	3.7	2.4	3.7	- 미국 원전 밸류체인 붕괴로 팀코리아 수주 확대가 예상, 이에 장기적으로 대미 원전 투자의 주계약자로 인한 프리미엄이 부각될 전망 -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미 원전 협력 진전에 따른 추가 주가 모멘텀도 유호
	24년	25년	26년																							
매출액	93,398.9	97,646.8	98,502.1																							
영업이익	8,364.7	14,976.7	9,853.2																							
순이익	3,622.0	9,110.5	5,906.7																							
PER (배)	3.7	2.4	3.7																							
화장품	에이피알 (278470)	373,000 (6/22일)	+5.4%		(단위: 십억원, 배) <table><tr><th></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r><tr><td>매출액</td><td>722.8</td><td>1,450.5</td><td>2,944.3</td></tr><tr><td>영업이익</td><td>122.7</td><td>347.6</td><td>731.3</td></tr><tr><td>순이익</td><td>107.6</td><td>282.0</td><td>565.2</td></tr><tr><td>PER (배)</td><td>17.6</td><td>51.4</td><td>25.6</td></tr></table>		24년	25년	26년	매출액	722.8	1,450.5	2,944.3	영업이익	122.7	347.6	731.3	순이익	107.6	282.0	565.2	PER (배)	17.6	51.4	25.6	- 아마존프라임데이(6/23~26) 고성과에 대한 주가 선반영 기대. 전년 행사기간 4일간 300억원의 매출 기저를 상회하는 성과 발생 시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 2분기 실적 호조 가능성 높음. 현재까지 발표된 오프라인 파이프라인(3월 세포라, 4월 타겟, 6월 월마트 입점 확정)만 해도 영업이익 1,700억 상회할 것
	24년	25년	26년																							
매출액	722.8	1,450.5	2,944.3																							
영업이익	122.7	347.6	731.3																							
순이익	107.6	282.0	565.2																							
PER (배)	17.6	51.4	25.6																							